■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94〉

어부지리(漁父之利)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정치는 본질적으로 경쟁이다. 서로 다른 가치와 정책,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그 경쟁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이 아니라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는 순간, 정치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공동체를 소모시키는 힘으로 바뀐다. 서진(西晉) 말기의 팔왕의 난(八王之亂)은 이러한 내부 분열이 국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서진 혜제(惠帝) 때 일어난 팔왕의 난은 황후 가남풍(賈南風)의 전횡과 황태자 사마휼(司馬遹)의 폐위·살해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지적 장애가 있었던 혜제는 국정(國政)을 주도할 능력이 부족했고, 그 빈자리를 황후와 외척, 황족들이 메우면서 황실 내부의 권력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남풍이 후계 구도마저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하자, 여러 제후왕은 "황실을 바로잡고 역적을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사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왕 사마륜(司馬倫)은 가남풍을 제거한 뒤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라 명분을 잃었고, 이를 토벌한 제왕 사마경(司馬冏) 역시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 이후 하간왕 사마옹(司馬顒), 성도왕 사마영(司馬穎), 장사왕 사마애(司馬乂), 동해왕 사마월(司馬越) 등은 연합과 배신을 반복하며 서로를 공격했다.

이 싸움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도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한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 곧바로 다른 세력이 "정통성을 회복하겠다"거나 "역적을 제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봉기했다. 승리는 곧 다음 전쟁의 출발점이 되었고, 정치적 명분은 원칙이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황실의 권위는 급속히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형주자사 유홍(劉弘)은 황실 내부의 다툼이 가져올 파국을 정확하게 내다보았다. 그는 "두 호랑이가 서로 싸우면 결국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변장자호(卞莊刺虎)의 고사를 들어 제후왕들을 경고했다. 이는 황실 내부의 권력투쟁이 외부 세력의 성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었다.

유홍의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다. 황실 내부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끊임없이 뒤바뀌었고, 중앙정부는 지방을 통제할 능력을 잃었다. 황제는 정치적 정당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전락했으며, 실제 권력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이 행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치열한 권력투쟁 속에서 황실 내부의 뜻밖의 승자가 나타났다. 유력 제후왕들이 서로를 제거하는 사이, 비교적 정치투쟁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던 예장왕 사마치(司馬熾)가 새로운 후계자로 부상한 것이다. 성도왕 사마영이 황태제(皇太弟)로 책봉되었다가 몰락하자, 사마옹은 그의 지위를 폐지하고 사마치를 황태제로 세웠다. 이후 혜제가 사망하자 사마치는 회제(懷帝)로 즉위했다.

그러나 사마치의 즉위는 승리라기보다 폐허 위에서 얻은 명목상의 권력에 가까웠다. 이미 황실의 권위와 국가의 통치 기반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 뒤였다.

더 큰 문제는 진정한 수혜자가 황실 밖에 있었다는 점이다. 황실이 내부 투쟁에 몰두하는 동안 흉노계 유연(劉淵)은 한(漢)을 건국해 훗날 전조(前趙)의 기반을 마련했고, 촉 지역에서는 이특(李特)이 세력을 키워 성한(成漢)의 토대를 닦았다. 중앙 권력이 약화될수록 변방과 지방의 세력은 급속히 성장하며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결국 서진은 낙양(洛陽)과 장안(長安)을 차례로 상실했다. 회제는 유총(劉聰)에게 사로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서진은 사실상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사마예(司馬睿)가 남쪽 건업(建業)에서 동진(東晉)을 세웠지만, 중국은 오호십육국과 남북조로 이어지는 장기 분열의 시대로 들어섰다. 팔왕의 난은 단순한 황족 간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통일 제국 서진의 붕괴를 촉진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오늘날 정치 역시 이 교훈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야 간 대립은 민주주의에서 불가피하지만, 그 대립이 정책 경쟁이 아니라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로 변질될 때 국정 운영 능력은 급속히 약화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각 진영 내부의 권력투쟁이다. 차기 권력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격화될수록 정치권은 국민의 삶과 국가적 과제보다 내부 경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정치권은 종종 상대 진영의 실패를 자신의 성공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팔왕의 난이 보여주듯,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데 몰두하는 순간 가장 큰 이익은 제3자에게 돌아간다. 그것은 해결되지 못한 경제·안보·사회 문제를 가지고 나타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일 수도 있다.

팔왕의 난은 분명한 경고를 남긴다. 내부 경쟁이 체제 전체를 소모시키는 수준에 이르면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황실 내부에서는 사마치가 어부지리로 황위를 차지했지만,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진정한 승자는 황실 밖의 세력이었다. 그리고 유홍이 변장자호를 들어 경고했듯, 두 호랑이가 서로를 물어뜯는 동안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언제나 싸움 밖에서 기회를 엿보는 제3자다.

우리는 이를 흔히 어부지리(漁父之利)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정치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세력은 누구인가. 야당 내부의 권력투쟁이 격화될 때, 여당 내부의 갈등이 증폭될 때, 여야가 협치의 가능성을 외면한 채 극한 대립을 이어갈 때 그 틈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누구인가.

그 답은 어렵지 않다. 정치적 갈등이 격화될수록 가장 먼저 이익을 얻는 것은 상대 진영의 실수를 기다리며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경쟁 세력이다. 그러나 더 큰 수혜자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일 수 있다. 기존 정당들이 정책 경쟁보다 정쟁에 몰두할수록 유권자들은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대안을 찾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제3지대나 비주류 정치 세력이 성장할 공간이 넓어지며, 국가적 분열이 극심해질 경우에는 외부 세력이 개입할 여지도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를 알면서도 정치가 같은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는 데 있다. 팔왕의 난이 보여주듯 내부 경쟁이 통제되지 않으면 체제 전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국민은 정치의 승패가 아니라 성과를 원한다. 그러나 정치가 성과보다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민의 피로감과 냉소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정치를 외면한다. 정치인들이 서로를 이기는 데만 몰두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무력해 보일 때, 정치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교훈은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온다. 팔왕의 난이 남긴 가장 큰 경고는 분명하다. 내부의 적을 이기는 데 몰두하는 순간, 공동체 전체가 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사성어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대량살상(大量殺傷)

큰 대. 헤아릴 량. 죽일 살. 다칠 상.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살상하는 행위를 뜻하며 대량살상무기(WMD)는 핵, 화학, 생물 등 대량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통칭하는 말로도 사용됨

대소신료(大小臣僚)

큰 대. 작을 소. 신하 신. 동료 료

크고 작은 관직에 있는 모든 신하

조선시대 기록에서 조정 신하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였음

대우탄금(對牛彈琴)

대할 대. 소 우. 결 탄. 거문고 금.

소를 대하고 거문고를 켠다. 라는 뜻으로 소에게 거문고를 켜듯 어리석은 사람에게 깊은 말을 들어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므로 소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유래: 중국 양나라 승려 우가 편찬한 홍명집에 실린 노나라 공명의의 일화에서 유래

노나라 공명의가 소에게 고상한 곡조를 들려주자 소가 듣지 않다가 모기, 등에, 송아지 울음소리를 흉내 내자 소가 귀를 세우고 들었다고 함. 우이독경(牛耳讀經)과 같은 의미입니다.

대서특필(大書特筆)

큰 대. 글 서. 특별할 특. 붓 필.

특별히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글자를 크게 쓰다.

신문 등의 인쇄, 출판물에서 어떤 내용에 비중을 두어 크게 다룸. 중요한 사건, 커다란 성과나 업적을 강조해서 소개할 때 쓰이는 표현

대성통곡(大聲痛哭)

큰 대. 소리 성. 아플 통. 울 곡.

큰소리로 몹시 슬프게 곡을 함

유의어: 대곡(大哭), 통곡(痛哭), 호곡(號哭), 방성대곡(放聲大哭), 방성통곡(放聲痛哭)

대의멸친(大義滅親)

큰 대. 옳을 의. 멸할 멸. 육친 친.

큰 의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정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친족도 죽인다는 뜻으로 국가난 사회를 위해서는 사사로이 부모나 형제한테도 냉엄하다는 의미

유래: 이 말은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일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위나라 석작이 주우와 석후를 처단해 "대의를 위해 육친을 멸했다"는 평가가 이 성어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자주 인용됩니다.

권혁홍 회장 권영창 명예회장 방문

권행완 편집국장, 권오철 사무국장, 권혁홍 회장, 이경자 사임당, 권영창 명예회장, 권중수 회장, 권혁환 권문회 사무총장(왼쪽부터)

권혁홍 회장은 6월 25일 안동 방문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전임 회장인 권영창 명예회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권중수 영주종친회장과 권오철 사무국장, 이경자 사임당과 권행완 편집국장과 권혁환 권문회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권영창 명예회장은 회장님 내외분께서 영주까지 오셔서 감사하다. 특히 사임당께서 오셔서 감사하다. 처음 인사를 잘 해야 순탄하게 된다. 재임 시에 할 일이 참 많았다. 뭘 하려고 했고 왜 안됐는지 보고받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홍 회장은 바쁘신데 불러주셔서 고맙고, 지난 3년 동안 대종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 문제 없는 조직이 어디 있겠는가. 잘 극복해 나가면서 열심히 해보겠다. 저는 60년 동안 골판지 사업을 했다. 직원이 1100여명 되고 공장이 전국에 걸쳐 있다. 회사에는 서울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등 다양하게 있는데, 노조가 6-7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노사관계에 문제는 한 번도 없었고 잘 화합하여 큰일 없이 지냈다. 노조위원장과도 관계가 좋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안동권문도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권중수 회장은 회장님 연세가 41년생인데 막상 보니 저보다 젊어서 깜짝 놀랐다. 회사 경영할 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듯이 대종회 회장으로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권영창 명예회장은 현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장을 맡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설암 권옥현 선생 학문과 시세계 재조명

2026 모암계 학술발표회 성료

장손 권석근 인사

지난달 6일 부산·경남 지역 유학계에서 추앙받는 대표적인 유학자인 설암(雪嵒) 권옥현(權玉鉉, 1912~1999) 선생의 제27주기 추모식을 겸한 학술발표회가 부산 연산동 해암뷔페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모암계 계장인 경성대학교 정경주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부산대 사범대학 김홍수·한문학과 이성혜 교수, 전 양산대 엄원대 교수, 동아대 유영옥 교수, 동의의료원 서영주·김경환 교수, 한국국학진흥원 김선미 연구원, 학연서당 정영만 박사, 가야사 연구학자 백승옥 박사, 김해향교 이성규·김경규 선생, 동래향교 및 고성향교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인천 부평향교의 지용선·양성호 선생과 부산문학포럼 회원, 안동권씨종친회 권영현 부산회장과 (사)한국성씨연합 권길상 총재, 부산의 양석규 선생과 대구·합천 지역 유림 및 향토문화계를 대표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설암 선생이 남긴 학문적 성취와 유덕을 함께 칭송하며 기렸다.

설암 선생의 장손인 권석근 ㈜세일사 회장은 인사말에서 "모암계 서문에 담긴 '그 사람을 사모하는 것은 그가 걸어간 도를 밝히고 본받기 위함'이란 말처럼, 이번 학술발표회가 조부님의 유문과 학문 세계를 깊이 연구하고 본받아, 그 뜻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온고지신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모암계의 계장인 경성대학교 정경주 명예교수는 모암계는 선현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서문에 담긴 "부모기인(夫慕其人) 소이모기도(所以慕其道) 이강명효칙야(而講明效則也)"의 정신 아래 선현의 도를 밝히고 본받는 학술·문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히면서 "설암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정신적 유산의 계승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설암 선생이 남긴 한시와 유문(遺文), 그리고 학문정신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한 자리다. 그 백미는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최종호 교수가 발표한 '설암 권옥현 선생의 시세계 고찰'을 주제로 한 "설암 선생의 경주 유람 시 고찰"이었다. 최 교수는 "설암 선생은 평생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쓴 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전통 유학의 계승과 실천에 헌신하였다. 또한, 방대한 저술 활동을 통해 "설암문집(雪嵒文集)" 18권 6책을 남겼으며, 이는 지역 유학사와 한문학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설암 선생의 시문학적 특징과 학문적 성과, 그리고 유학자로서의 정신세계를 심도 있고도 격조 높게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허영자 시인은 "얼암 권옥현 선생을 기리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평생을 재야의 처사로 몸을 낮추어
엄격한 스스로의 수신과
후생의 교육에 진력하신 큰어르신
아쉽고 안타깝고 존숭하는 마음을 모아
모암계를 결성한 기림의 모임 20여년
그 추모 정성 갈수록 높아라

사람들은 선생을 일컬어
"20세기 최후의 선비"라 하였지만
사람들은 다시 일컬어야 하리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않은 삶과
성찰과 반성으로 높은 가치를 추구
인격의 모범, 시대와 사회의 양심이셨던
"영원한 선비 설암 선생"이라고

설암 선생은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출신으로, 1950~60년대 전후에는 자녀 교육과 후학 양성을 위해 대구 달성군, 합천 대병에서 거주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는 부산 지역으로 옮겨 금정구 남산동과 동래구 명륜동, 기장군 일대에서 금남서당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후학 양성에 힘썼다. 이 시기 선생은 지역 유림과 긴밀히 교류하며, 전통 유학의 실천과 계승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오늘 행사에는 설암 선생의 자제인 해극 씨를 비롯한 사형제가 참석해 선친의 학덕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으며, 일가 후손들과 문중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하여 학술발표회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모암계는 앞으로도 설암 권옥현 선생을 비롯한 선현들의 학문 세계와 정신을 연구·조명하고 계승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이들도 이번 발표회가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지역 학술문화 자산을 계승하고 전통 인문 세계를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권채영 부산종친회